

# “환경5계 제정은 시대적 요청”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과 친환경 사상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환경5계 제정의 로드맵이 나왔다.

불교환경연대와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1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환경5계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로드맵을 설명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환경5계 제정 문제를 공론화하고 내년 3월께 두번째 세미나를 열어 환경5계의 구체적인 시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각 종단과 불교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내년 부처님오신날 전까지 환경5계를 확정, 대대적인 선포식과 불자들이

## 환경연대-조계종 환경위원회 로드맵 마련

### 내년 3월 시안 발표...초과일 前 선포

의 실천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첫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김재일 서울생태연구소장은 “오늘날 환경문제는 물질적인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신적인 문제가 물질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환경보존을 스스로 다짐하고 실천하기 위한 환경5계를 제정하고 사회적인 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생태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간의 불교환경운동이 입

기용변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었고 지적인 김재일 소장은 “환경5계는 가장 불교적이면서 새로운 환경운동이 될 수 있다”며 △참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사부대중의 근본계어야 한다 △불교의 사회참여로 확대되어야 한다 △대국민 약속이어야 한다 등 환경5계의 1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정길 예코부터 대표는 환경5계 제정은 시대적 요청임을 강조했다. 유정길 대표는 “군이 시대적인 방편인 환경5계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위기의 시대에 새롭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피 생활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실천위원회 또는 행동위원회를 구성해 꾸준히 지속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재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환경5계를 제정하고 실천하는 일은 시민운동과 종교적 실천운동이 결합된 형태의 환경운동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접근”이라며 “환경5계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계율에 정통한 율사, 불교사상을 이해하는 학자, 불교번역을 시도하는 운동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 “국제선센터 설립 필요”

## 종훈 스님, 템플스테이 활성화 토론회서 주장

“간화선을 수행을 장기간 집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국제선센터)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은 12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1박 2일의 단기간이므로 장기(1주일 이상)에 걸쳐 수행하고자 하는 참가자들은 현재 참여조건 불가능하다”며 프랑스의 플라빌리지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제진 의원실과 국회문화정책포럼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종훈 스님은 또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양성 등 경성비 지원 확대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종훈 스님은 “사찰별 참가자 안내 책자 보급, 참가자들에 대한 비주류 서비스 제공(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등), 인력양성 및 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그

램 개발,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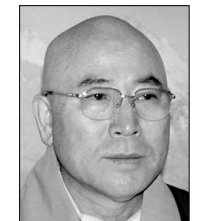
종훈 스님은 이 외에도 템플스테이 주무관리부서인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템플스테이 사업 유도를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홍석 문화관광부 관광사업팀장은 템플스테이 운영 개선과제로 △수용태세 개선 △체험 프로그램 차별화 부족 △선진외국인과 GNP 2만불 시대에 걸맞는 방문객 만족도 제고 △단기 및 장기 템플스테이 수요충족에 따른 전략 수립 △지역관광코스 등과 연계한 사찰 특화마케팅 등을 제시했다.

조덕현 한국관광공사 전략사업팀장은 “발달단계 △명확한 목표시장 설정 △선택과 집중을 통한 템플스테이 사찰 육성 △프로그램 다양화 △한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

램 개발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 △템플스테이 관광 브랜드화 전략 수립 등을 템플스테이를 통한 한류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내놓았다. 남동우 기자

## 불교방송 4대 이사장에 종하 스님 만장일치 추대



불교방송 4대 이사장에 종하 스님(사진·서울관음사 주지)이 선임됐다. 불교방송 이사회는 12월 13일 마포 홀리데이인서울에서 열린 제60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종하 스님을 새 이사장에 선임했다. 종하 스님의 임기는 내년 1월에 시작되며 4년간이다.

종하 스님은 “불교방송 이사장을 맡게 돼서 무거운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불교방송의 현안을 실무자와 사장, 이사진의 뜻을 받들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천불교전승가회(공동의장 성관·효립)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10년 전 불교방송 공급형명사건 당시 이사장으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재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에 상당한 의혹을 불러온 바 있는 당사자가 또다시 경영 일선의 최고 책임자로 돌아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하 스님은 1958년 해인사로 출가해 59년 고봉 스님, 68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중앙종회의원을 9차례, 중앙종회의장을 두 차례 역임했으며, 불교방송국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강지연·박봉영 기자

## 불교·개신교 등 강원도 종교지도자 9명

#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결의

불교 등 강원지역 범 종교 단체는 12월 13일 춘천 강원도개발공사 소회의실에서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대표자 결의대회’를 갖고 유치결을 확정 등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종교 지도자 9명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강원도는 우리나라 분단의 중심지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인류 평화 공존의 정신을 되새기는 올림픽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이들은 또 유치 결의문을 통해 동계올림픽 평창 개최를 염원하면서 범국민적 유치 열기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7월 4일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12월 17일부터 유치 기원 200일 기도를 시작하기로 결의하고 입제에 들어갔다. 불교계에서는 태고종 석왕사 주지 백운 스님과 현대종 삼문사 주지 월도 스님이 참여했다.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과 종교인 기

도회 내용을 내년 2월에 실시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현지 심사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 알기쉬운 불교영어 강좌

### 국제포교사회, 1월 6일 개강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강영성)는 제4기 알기 쉬운 불교영어 강좌 회원을 모집한다. 강좌는 1월 6일부터 3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진행된다.

총 8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불교 교리, 역사, 부처님 생애, 문화 등 불교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영어로 소개할 예정이다. 수업료는 8주 과정에 5만원이며, 강좌 수강자에게는 국제포교사양성과정 선발시험 응시시 가산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접수는 12월 13일부터 1월 5일까지 국제포교사회 사무국(02-722-2206)으로.

남동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헌법 스님이 낸 가처분 소송 기각

# “재가연대 활동 공익 위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 재판장 김우현은 헌법 스님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참여불교재가연대와 불교정보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12월 7일 기각했다.

민사50부는 “참여불교재가연대와 불교정보센터가 발표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 및 이로부터 야기되는 의혹들에 관한 것이어서 진실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과 ‘조계종의 중현과 중법규정에서 정한 중앙종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주로 신도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으로서 조계종의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있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불교재가연대는 12월 13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조계종단의 구성원인 사부대중이 누구나 종단의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출가자의 위신과 권위를 이유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자정활동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중앙종회의원과 중무원들은 공인으로서, 그 자격에 대한 문제제기는 조계종의 공익

을 위한 것’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봉영 기자

## 서울 노숙인시설 종사자

### 임금 20% 상향 조정

그동안 열악한 처우와 보수를 받아오던 서울시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내년부터 보다 나은 근무여건에서 종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12일 ‘2007년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에 평균 20%정도 소폭 향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노숙인 복지시설은 복지시설 분야 중에서도 특히 낮은 보수를 받아왔다. 서울복지재단이 지난 7월 서울시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수지급기준에 따른 시설유형별 연봉을 비교 조사한 결과,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상담봉사를 하는 5년차 사회복지사는 평균 2100만원 받는 반면, 노숙인보호시설 사회복지사는 1800만원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비 기자



토론회에는 이상득 국회의원,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조배숙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장이 참석해 경청했다.

## 국제포교 걸림돌 “언어장벽·무관심”

### 세계화 세미나서 지적

“한국불교 세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의 장애와 종단의 무관심 때문이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12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나온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수행이 국제포교의 핵심키워드임을 재확인했다. 각국의 불교가 포교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적인 요소가 없다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한국불교의 세계화가 나라별 언어·문화적 차이, 현지법과 한국법 차이, 열악한 포교재정 등에서 기인한 만큼 이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국제포교 활성화의 길이

라고 지적했다.

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해 발제한 기후 스님(前 호주 정법사 주지)은 이를 위해 △재정적 뒷받침 △1번사 1회의포교당 운영 △분담금에 해외포교당 운영비 항목 추가 △국제포교 인재 양성 △해외포교 시스템 구축 등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또 미주지역과 유럽지역 발제자 진월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과 이동호 발틱연구소장은 인터넷 활용, 외국인 한국문화 체험 확대, 재난구제활동 강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포근한 남쪽나라 제주로 겨울수련을 떠나요**

# 생활속에서 깨닫는 참선의 길

## 삼매체험 30주년 7일간 집중수련

**바로 끊고 바로 먹는 쉬운 금강단식 - 직효(피부미용 아토피 체중감량 위장 고혈압 당뇨 각종질환 금연 체질개선 등)**

- 단식으로 맑고 가볍게 화두참선에 들어간다.
- 회두 의식만 할 줄 알면 세상살이는 가볍다.
- 피부미용(아토피) 체중조절(1일 최고 3kg감량) 고혈압 당뇨, 금연 체질개선 직효-바로 끊고 바로 먹어 위험부담없는 단식.
- 신체정신 부담없이 단식참선으로 시작.
- 단식전 예비단식과 단식 후 보식이 필요없음.
- 수료 후 직장생활 중에 단식 가능함.
- 하루시간 - 참선법문 좌선 행선 요가 운동 취침
- 통화 후 차수를 정하고 항공편 예약 요.

1. 홈페이지: www.wseon.com 원명선원.kr
2. 대상 및 인원: 고교 이상 일반인 (본인의사 확인요)
3. 수련일정 (6박 7일)
  - ◆ 1차 : 07. 1. 4 ~ 1. 10    ◆ 2차 : 07. 1. 16 ~ 1. 22
4. 접수처: '06년 12월 30일까지 선착순 00명  
제주시 화북1동 원명선원(교대 옆) ☎ 064)755-3322
5. 회 비: 후원금으로 받음(생계가 어려운자는 고려함)

본분도량 한라산 원명선원